

사전예약 · 비대면 성묘 운영

전주시, 29일~2월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자체 운영 실내 봉안시설 폐쇄 연휴 전후 사전예약제 운영 시설 일부 개방 ·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전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가오는 설 연휴 기간에 자체 운영 중인 봉안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단, 연휴 앞뒤로 사전예약을 받아 시설을 일부 개방하고, 비대면으로 성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추모 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운영 지침에 따라 설 연휴 기간 봉안시설 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시는 자체 운영하는 실내시설인 봉안당과 봉안원을 설 연휴기간 전면 폐쇄하고, 명절 전인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방문할 성묘객을 하루 500명까지 예약을 받아 운영하기로 했다. 동시 입장인원도 시설별로 48명까지 제한되며, 가족당 이용시간도 30분까지만 허용된다. 전주승화원 화장장은 설 당일인 2월 1일 하루 폐쇄된다.

실외시설인 효자공원묘지는 오는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성묘객 총량 예약제로 운영된다. 공원묘지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지만, 가족당 6명, 성묘시간 30분, 시간대별 1000명, 1일 4000명으로 제한된다.

공원묘지 출입구 6곳에는 발열체크 및 인원 통제 역할을 맡을 방역인력이 배치되며, 음식물 섭취는 모두 금지된다.

민간 봉안시설들의 경우에는 설 연휴기간 폐쇄 및 사전예약제 권고에 따라 효자추모관과 그린파이추모공원, 금상동성당 하늘자리, 모악추모공원, 자민추모관이 오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간 폐쇄기로 결정했다. 전주 추모관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원칙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시는 이와 별도로 추모객 분산을 위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ehaneul.go.kr)를 통해 온라인 추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온라인 추모서비스는 고인명을 검색한 후 고인이 안치돼 있는 사진(봉안함 등)을 선택해 차례상과 헌화, 추모글 작성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민선시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설 명절 기간 추모객들이 방문에 대비해 방역·소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위중한 만큼 공원묘지 및 봉안당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사전예약 및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에는 자연장지를 포함해 총 13곳에 6만3049기의 장사시설이 있으며, 지난해 설 연휴기간 장사시설을 찾은 성묘객은 2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윤상 기자

전통놀이 전용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 인기

전주시, 상설 프로그램 · 이벤트 등 진행 2020년 9월 개관 이후 2만7000여명 다녀가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조성한 전통놀이 전용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에 전국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9월 개관한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 전통놀이 생활화·대중화·보급화 등을 위해 전통·융합(미술·국악 등) 놀이 상설 프로그램과 절기별 세시풍속과 연계한 연중 우리놀이 이벤트, 전국 공모전 등을 진행한 결과 개관 이후 전국 관광객 2만7000여 명이 다녀갔다고 19일 밝혔다.

'우리놀이터 마루달'은 시가 우수한 전통놀이 문화를 생활 속에 보급·확산시키기 위해 한옥마을에 국비와 시비 등 총 6억6000만 원을 들여 조성한 실내·외 전통놀이 전용공간이다.

시는 마루달 개관 이후 시설 이용객을 대상으로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옥마을을 활성화 환경조성을 위해 한옥마을 문화시설과 연계한 '전통놀이 스탬프 투어'를 운영했다. 또, 관·마당놀이 등 20여 가지 현대화콘텐츠 개발·보급하고, 전통놀이 전문·융합놀



이 전문강사 및 희망일자리 등 20명의 인력을 활용해 남녀노소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은 진행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99%의 전체만족도를 기록했으며, 대다수의 방문객(99%)이 재방문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는 향후에도 전통놀이 세계화와 지역의 풍부한 예술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팔복예술공장과 연계한 예술놀이 거점 공간인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머물며 즐기는 체류형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

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선정돼 청년 인력 8명에 연간 1억7000만 원의 사업비도 투입될 예정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우리놀이터 마루달의 공간 활성화와 전통놀이 보급·확산 운영을 위해 전통문화 관련 기관인 (재)한국전통문화전당과 협업하고, 전주만의 우리놀이 현대화콘텐츠 개발·보급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우수한 우리의 전통놀이 문화가 생활화되고, 나아가 세계화될 수 있도록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 매력' 中 상하이에 실시간 소개

시,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 · 전북지사와 'Hi, Korea' 프로젝트 추진

다채로운 매력을 간직한 국가대표 여행지인 전주한옥마을과 유동인구가 많은 중국 상하이 중심가가 가상의 문으로 연결된다.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전북지사와 손잡고 전주한옥마을의 매력을 상하이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Hi, Korea(하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제 방문이 어려운 한국의 주요 관광지의 모습을 온라인을 통해 중국 현지에 실시간 상영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주시가 참여하는 '하이 코리아' 행사는 19일부터 2주간 전주한옥마을과 상하이 중심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상하이 시민들은 현지 대표 소풍거리인 난징동루에 위치한 위예후이 광장 소풍광에 설치된 '문' 구조물을 통해 전주 한옥마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감상하게 된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상하이 난징동루는 총 길이 1599m로, 하루 평균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상하이 대표 소풍명소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주시민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경기전 광장에 설치된 스크린을 통해 상해 현지의 모습을 볼 수



전주시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전북지사와 손잡고 전주한옥마을의 매력을 상하이에 실시간으로 알리는 'Hi, Korea(하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중국의 소비주체가 될 MZ세대를 겨냥해 전주의 매력을 담은 웹툰 등을 제작해 해외 플랫폼에 연재를 계획하는 등 잠재적 중화권 시장을 겨냥한 다양한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명희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코로나로 양 지역의 방문 및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상하이 시

민에게 전주의 대표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될 예정으로 색다른 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올해에는 한국관광공사 국내외지사 및 재외공관, 재외한국문화원 등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코로나19의 상황을 주시하며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잠재적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

전주시가 맞벌이 부부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대신 돌봐주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전주시는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지원하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입원한 아이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부모를 대신해서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는 아이가 아파 병원에 입원하면 아동 간병교육을 이수한 입원아동돌봄보미가 간병과 투약 돕기, 정서적 지원(놀이지원·책 읽어주기) 등 종합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전주지역 병원에 입원한 만 3개월에서 만 12세까지 아동으로 이용자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수형기관인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063-231-0285)에 신청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약이 체

결되면 아동과 적합한 입원아동돌봄보미가 배정되어 아동이 입원한 병원으로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1만3000원으로, 이용자는 소득에 따라 시간당 2500~5200원을 부담하고, 하루 이용시간은 2시간 이상이며, 연간 최대 5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입원아동 돌봄 서비스를 활성화 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청 등과 협의회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관내 입원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 과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설 명절 선물용품 과대포장 합동 점검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 세트류 과대포장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나섰다.

시는 19일 한국환경공단과 도·시 담당자들이 함께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명절 선물용품의 과대포장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설을 앞두고 다양한 선물세트가 출시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없애고 불필요

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포장 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초과, 초과 등 선물 세트류를 대상으로 포장 재질 및 포장 방법(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간이 측정 후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경우는 제조업체에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업체에서는 전문가의 검

사를 받은 후 검사 성적서를 점검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검사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병집 전주시 정원도시지원순환본부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일회용품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